

依存狀況 및 印象判斷次元에 따른 對人評價特性的 記憶量의 差異* **

趙 兢 鎬
西 江 大 學 校

이 연구는 필자(趙, 1982 a)가 제시한 대인평가차원의 이원모형을 대인기억분야의 연구방법을 원용한 세개의 실험으로 검증한 것이다. 실험 I에서는 103명의 피험자에게 53개의 성격특성형용사를 제시하고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와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를 각각 평정하게 하여, 지적 특성형용사와 정적 특성형용사를 찾아내었다. 실험 II에서는 정보의존상황과 효과의존상황이라는 도식에서 두가지 특성으로 구성된 대상인물에 대해 인상판단을 하게 했을 때, 전자의 경우에는 지적 특성,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적 특성의 기억량이 그 반대의 것보다 높음이 발견되었다. 실험 III에서는 호오차원과 화친차원이라는 인상판단도식으로 인상판단을 하게 하면, 각각 지적 특성과 정적 특성의 기억량이 그 반대의 것보다 높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보의존상황에서의 호오차원인상은 지적 특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효과의존상황에서의 화친차원인상은 정적 특성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필자의 이원모형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논의되었다.

對人記憶(person memory) 연구분야의 중요 관심은 일반적인 인지심리학에서와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정보의 표상(representation) 및 그 처리과정(processing)에 있다(Landman & Manis, 1983). 즉 “대인지각에 기저하는 인지구조(타인에 대한 지각내용)와 그 정보처리과정을 인지심리학에서 빌어온 실험기법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밝혀내려는 연구분야”(Hamilton, 1981, p.136)가 바로 社會認知(social cognition) 또는 대인기억 연구분야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분야에서는 타인에 대한 정보를 성격특성(예; Cantor & Mischel, 1977)이나 행동진술문(예; Rothbart, Evans & Fulero, 1979)으로 제시하고, 그 지각내용을 圖式(schema; Bartlett, 1932), 固定觀念

* 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1984年度 西江大學校 學內研究費의 보조가 있었다.

** 실험의 실시와 결과처리에서 한양대학교 대학원의 구본용, 박광엽, 이영훈, 김종수 군들의 도움이 있었다.

(stereotype; Allport & Postman, 1945), 臺本(script; Abelson, 1976) 또는 原型(prototype; Hofstadter, 1979) 등으로 조작하였을 때의 정보 처리과정과 그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이러한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각자가 대상인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도식, 고정관념, 대본 또는 원형에 적절한(또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기억이 촉진된다는 것이다(Hastie, 1980, 1981; Fiske & Linville, 1980; Taylor & Crocker, 1981; Markus, 1977; Park & Rothbart, 1982; Linville & Jones, 1980; Srull, 1981; Hastie & Kumar, 1979; Abelson, 1981; Cantor & Mischel, 1977; Brewer, Dull & Lui, 1981; Higgins & Rholes, 1976; Rothbart, Evans, & Fulero, 1979; Lingle, Geva, Ostrom, Leippe, & Baumgardner, 1979; Ostrom, Lingle, Pryor, & Geva, 1980; Wyer & Srull, 1980, 1981; Hamilton, 1981; 등).

이러한 결과는 주제 또는 도식에 적절한 정보(theme-relevant information)가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선택적으로 더 잘 入力되고 組織化되기(Sternberg & Tulving, 1977; Lichtenstein & Brewer, 1980; Hamilton, Katz, & Leirer, 1980(a),(b); Ostrom, Pryor, & Simpson, 1981; 등)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Smith와 Shoben 일파(Smith, Shoben, & Rips, 1974; Smith, 1978; Shoben, 1980)와 Bransford(1979)의 주장대로, 기존의 범주에 속하는 항목들은 더 활성화되고 더 잘 조직되기 때문에 후속의 정보처리과정이 더욱 촉진되므로써 기억이 잘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현상을 정보에 대한 선별적인 입력 및 조직화과정의 차이로 설명하지 않고, 주제 또는 도식에 적절한 정보와 부적절한 정보 간의 저장 및 인출의 聯合網(associative network)의 차이 때문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Atkinson & Juola, 1974; Hastie, 1980, 1981; 등). 즉, 주제에 적절한 정보는 정보의 저장단계에서 많은 다른 정보와 연합망을 형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출과정이 쉬워지므로 기억이 잘 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설명양식의 상대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Ebbesen과 그 일파(Allen & Ebbesen, 1981; Cohen & Ebbesen, 1979; Ebbesen, 1981; Ebbesen & Allen, 1979; 등)는 혼합모델(hybrid model)을 제시하고, 주제에 적절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 간에는 정보의 입력과 인출과정 모두에서 차이가 나게 되고, 이것이 전자에 대한 기억량이 후자에 대한 그것보다 큰 까닭이라는 점을 두가지 정보에 대한 반응시간의 차이를 조작한 연구들에서 밝혀내고 있다. 최근에 Srull(1984)도 대인기억 연구분야에서의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개관하면서 Ebbesen 일파의 이러한 혼합

모델의 타당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도식, 고정관념, 대본 또는 원형 등으로 조작된 주제에 적절한 정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더 잘 조직화되고 또 인출과정도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억이 촉진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도식은 주의, 정보의 선택적 유지, 통합, 인출 및 인출내용의 편집 등 전체적인 기억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Brewer & Treyns, 1981 ; Brewer & Nakamura, 1984).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기제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대인기억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주제에 적절한 정보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잘 기억된다는 공통된 결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필자(趙, 1984)에 의해서도 얻어지고 있다. 필자는 앞서서 그가 제시한 대인평가차원의 이원모형(趙, 1982 a)을 대인기억의 연구상황에서 검증해 보려는 연구에서 앞의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었던 것이다.

필자(1982 a)의 대인평가차원의 이원모형은 타인에 대해 이루어지는 인상 판단의 과정과 내용은 지각자의 타인에 대한 의존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 즉, 타인이 갖는 情報源으로서의 가치 때문에 의존하는 정보의존의 상황에서는 대상인물의 정보제시능력과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목표에서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效果源으로서의 타인의 가치에 의존하는 효과의존의 상황에서는 그의 효용제공의도 및 성향을 평가하는 목표에서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인물에 대한 정보의존의 상황에서는 그가 얼마나 올바른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는가 하는 특성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이러한 지적 활동의 특성을 단서로 하여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때 제시되는 정보가 얼마나 올바른 것이냐의 여부는 객관적인 공적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인상판단은 공적·사회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근거에서 그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상판단의 내용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볼 때 情報源으로서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나쁜 사람이냐 하는 好惡次元(good-bad dimension)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상인물에 대한 효과의존의 상황에서는 그의 일반적인 효용제공의도나 성향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이러한 정적 특성을 단서로 하여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때 대상인물의 효용제공의도나 성향의 판단은 지각자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과거경험에 의존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인상판단은 사적·개인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근거에서 그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상판단의 내용은 대상인물에게 접근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주관적인 행동의도에 바탕을 둔 것이 된다. 즉, 그를 얼마나 좋아할 것

이나 아니면 싫어할 것이냐 하는 和親次元(like-dislike dimension)에서 인상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필자(趙, 1984)는 이러한 이론적 모형에서 호오차원과 화친차원이 타인의 인상을 판단하는 서로 다른 도식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 호오차원이라는 인상의 도식에는 지적 특성이 적절한 정보가 되는 반면 화친차원이라는 인상의 도식에는 정적 특성이 적절한 정보가 되는 것이라고 추리하였다. 그리하여, 동일한 수의 지적 특성과 정적 특성으로 하나의 대상인물을 구성하여 제시하고 호오차원인상과 화친차원인상을 각각 형성하도록 하였을 때, 호오차원의 인상을 판단하는 장면에서는 대상인물의 정적 특성 보다는 지적 특성에 대한 회상량이 높고, 반대로 화친차원의 인상을 판단하는 장면에서는 대상인물의 지적 특성 보다는 정적 특성에 대한 회상량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결과를 대인기억 연구분야의 실험결과들과 결부시켜, 호오차원 인상판단에는 지적 정보가, 그리고 화친차원 인상판단에는 정적 정보가 더 적절한 특성이 되어 각각의 인상판단 장면에서 해당 적절 정보에 대한 기억의 촉진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논의하고, 이는 필자의 대인평가차원의 이원모형을 지지해 주는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는 필자의 관련된 선행연구(趙, 1982b, 1983)에서 지적 특성과 정적 특성만으로 구성된 대상인물에 대한 두 차원의 인상평가를 시키면 각각 호오차원 인상과 화친차원의 인상이 그 반대의 차원보다 더 극단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들이 많이 참조가 되었다.

그런데, 위의 실험(趙, 1984)에는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다. 그 하나는 실험재료의 문제이다. 이 실험에서는 張聖洙(1978)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필자와 2인의 심리학 전공교수의 합의에 의해 안면타당도를 기초로 지적 특성과 정적 특성을 분류하였다. 이는 이 두가지 특성차원을 요인분석이나 다차원분석의 방법으로 분류해낸 선행연구결과가 거의 없고, 유일하게 있는 것(김성희, 1982)도 好惡度値와 和親度値의 척도치에 관한 자료가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각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의 수가 3~7개까지 다양하여 이 자료에 의해서는 이들에 관한 통제를 하기가 어려운 까닭이었다. 그렇지만, 안면타당도에 의해 이 두 차원의 특성을 분류해서 실험자료로 사용한 위의 실험결과는 다른 실증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제한점은 종속측정치에 관한 것이다. 위의 실험에서는 제시되어진 특성에 대한 회상량만을 종속측정치로 삼고 있다. 그러나, Sruul(1984)이 주장하듯이 대인기억에서의 종속측정치는 이 이외에 再認確信度(recognition confidence), 群集化測定値(clustering measure)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 여러 종속측정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대인기억의 과정을 밝히는데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면, 여러 다른 종속측정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이 된 후에야 위의 결과에 의한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대인기억의 구조와 과정을 밝히는 데에는 군집화가 매우 중요한 측정치이므로(Ostrom, Pryor, & Simpson, 1981), 이러한 측정치에 의해서도 위의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실험에서는 인상판단차원에 따른 대인특성정보의 회상량의 차이만을 검증해 내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이원모형(趙, 1982 a)은 이렇게 인상판단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임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물론 선행연구(趙, 1982 a, 연구 1)에서 정보의존상황에서는 호오차원인상을, 그리고 효과의존상황에서는 화친차원인상을 판단해내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지만, 앞의 실험이 필자의 이원모형에 대한 타당한 검증이 되기 위해서는 의존상황이라는 도식을 조작한 실험과 인상판단차원이라는 도식을 조작한 실험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정보의존상황에서는 지적 특성을 기초로 하여 호오차원 인상판단을 하게 되고, 효과의존상황에서는 정적 특성을 기초로 하여 화친차원 인상판단을 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실증적인 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세개의 관련된 실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실험 I에서는 지적 평가 특성과 정적 평가 특성을 분류하는 자료가 수집되었다. 실험 II에서는 의존상황을 조작하였을 때의 대인평가 특성의 기억량의 차이를 회상량, 재인확신도, 두 특성의 군집화정도의 차이 등의 종속측정치에 의해 확인하려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 III에서는 인상판단차원을 조작하였을 때의 두 평가특성의 기억량의 차이를 실험 II에서와 같은 종속측정치에 의해 확인해 보았다.

實 驗 I

이 실험은 후속되는 실험들의 재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우리말 인물평가형용사에서 지적 특성을 나타내는 말과 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말을 분류해 내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필자는 앞선 연구(趙, 1982 a)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 중에서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하여 타인에게 의존하는 정보의존상황과 자기가 가진 직접적인 욕구충족을 목표로 타인에게 의존하는 효과의존상황, 그리고 이 두가지에 모두 의존하는 복합의존상황을 분류해내었다(연구 1). 그리고, 이어서 피험자들에게 이러한 세가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그에 대한 인상을 평가할 때 지적 특성과 정적 특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할 것

인지를 직접 설문 방법으로 평정케 한 바, 정보의존상황에서는 지적 특성을, 효과의존상황에서는 정적 특성을 그 반대의 특성보다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평정하고, 복합의존상황에서는 이 두가지 특성을 모두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평정하는 결과(연구 5)를 얻어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면,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는 정보의존상황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특성은 지적 특성이라 볼 수 있고, 자기가 가진 직접적인 욕구를 상대방이 충족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특성은 정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인물평가 형용사들을 제시하고, 이들 각각에 대한 두가지 상황(정보의존상황과 효과의존상황)에서 인상평가를 할 때의 중요도를 측정해내어 그 차이를 검증해 보면, 우리말 인물평가형용사들을 지적 특성과 정적 특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가 효과의존상황에서의 그것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은 지적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반대로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가 정보의존상황에서의 그것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은 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方 法

被驗者 서강대학교에서 심리학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103 명이 본 실험의 피험자였다. 이들은 강의시간 중에 실험자의 요청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材料作成 張聖洙(1978)의 자료에서 호오도치와 화친도치가 모두 正的인 인물평가형용사 53 개를 뽑아 본 실험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負的인 인물평가형용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김성희(1982)의 연구에서 제 1 요인으로 추출된 일반적 평가차원에 속하는 단어들이 모두 負的인 단어들이어서, 한국어 인물평가형용사의 경우 負的인 척도치를 갖는 단어들은 지적 평가와 정적 평가의 하위차원으로 분할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또한, 負的인 단어들은 인상평가 상황에서의 중요도를 평정할 때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평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도 이들을 본 실험에서 제외시킨 또 한가지 요인이었다.

이들 단어들을 18 개씩(맨 마지막 장은 17 개) 3 페이지에 걸쳐 무선적으로 인쇄하고, 각 형용사마다 - 5 ~ 5 의 11 점 척도를 그려 넣었다. 이때 각 장마다 1, 7, 13 번째 단어의 중요도 평정척에는 - 5 부터 5 까지 숫자를 적어 넣은 다음, - 부호의 숫자들 위에 “중요하지 않다”, 양수의 숫자들 위에 “중요하다” 라고 기입해 넣고, 나머지 단어들의 평정척에는 각 숫자에 해당되는 짧은

은 가로선만으로 표시를 해 주었다.

그 다음으로 이들 형용사들의 중요도를 평정할 의존상황을 필자의 선행실험(趙, 1982 a, 연구 1)에서 정보의존상황과 효과의존상황으로 1 개씩 선정하였다. 정보의존상황으로 선정된 것은 “어떤 책을 선택해서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이었고, 효과의존상황은 “다른 사람에게 헌혈을 권유하려 할 때”이었다.

그 다음 이러한 상황 각각에서 인상평가를 할 때 위에서 선정된 형용사 각각의 중요도를 평정하게 하기 위한 지시문을 작성해서 인쇄하였다. 이때 사용된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어떤 사람을 찾게 되느냐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을 때와 우리가 가진 직접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을 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이 실험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라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때 만난 사람이 다음 장에 제시된 바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해주실 일은 ()라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어떤 특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여 인상평가를 하겠는지를 평정해 주시는 일입니다. 즉, 여러분이 ()라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각각의 특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여 그를 평가하겠는지를 평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보의존상황의 지시문에는 괄호속에 “어떤 책을 선택하여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라고 적어 넣고, 효과의존상황의 지시문에는 “다른 사람에게 헌혈을 권유하려 할 때”라고 적어 넣은 다음, 그 밑에 줄을 그어 눈에 잘 띄도록 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지시문과 형용사 중요도 평정지 3 장을 묶어 4 장씩으로 이루어진 소책자를 각 의존상황별로 작성하여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節次 실험자는 정규 강의시간에 강의실에 입장하여 학생들에게 실험에 참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소책자를 1 권씩 배부하였다. 이때 강의실의 좌석배치에 따라 강의실 왼편에 앉은 피험자(49 명)에게는 정보의존상황 소책자를, 강의실 오른편에 앉은 피험자(54 명)에게는 효과의존상황 소책자를 배부하고, 그 상단에 학번을 기재토록 하였다. 그 다음 실험자가 소책자의 지시문을 읽어주고 간단히 설명을 해 주었다. 이때 괄호속에 든 상황

은 읽지 않았으며, 피험자들은 실험자가 지시문을 읽는 것을 목록으로 따르도록 하였다. 그 다음 평정척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끝이어 중요도의 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때 질문사항은 개별적으로 손을 들면 실험자가 다가가서 조용히 응답해 주었다. 이러한 평정에 약 15 분이 소요되었는데, 전체의 평정이 끝난 후 이를 즉각 회수하였다. 평정지의 배부와 회수는 1명의 실험조수가 맡아 하였다.

그 다음 약 25 분 동안 실험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심리학개론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는 이 첫번째 평정이 후속되는 평정에 미칠지도 모르는 기억효과를 상쇄키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난 후 다시 소책자를 한권씩 배부하였다. 이때는 먼저번에 평정하지 않은 상황의 소책자를 받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에게 소책자 상단에 학번을 기재케 한 다음 지시문을 한번 읽어 보고, 끝이어 중요도 평정에 임하도록 하였다. 이때는 실험자가 지시문을 읽어주지 않고, 단지 먼저번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만을 주지시켜 주었다. 평정이 모두 끝난 후 소책자를 회수하였는데, 대체로 약 10 분이 소요되었다.

그러니까 피험자들은 대략 반씩으로 나뉘어(49명과 54명), 일부는 정보-효과의존상황의 순서로, 나머지는 효과-정보의존상황의 순서로 중요도 평정을 한 셈이다.

結果 및 解釋

103 명의 피험자들이 53 개의 인물평가형용사에 대해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와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를 평정한 평균과 표준편차, 53개 형용사 각각의 이 두가지 중요도 평정치 간의 積率相關係數(r) 및 두 중요도 평정치 사이의 차이(t)를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의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 보면,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가 효과의존상황에서의 그것보다 유의하게 높은 형용사는 모두 23 개(전체의 43.4%)이다. 이들은 신중하다, 현명하다, 슬기롭다, 틀림없다, 완벽하다, 철저하다, 착실하다, 유능하다, 날카롭다, 훌륭하다, 똑똑하다, 영리하다, 빈틈없다, 비범하다, 치밀하다, 야무지다, 꼼꼼하다, 근면하다, 민감하다, 고매하다, 깨끗하다, 엄격하다, 수단좋다 들로 모두 지적 활동이나 과제수행과 관계있는 知的 特性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가 정보의존상황에서의 그것보다 유의하게 높은 형용사는 18 개(전체의 34.0%)이다. 이들은 상냥하다, 인자하다, 너그럽다, 친절하다, 자애롭다, 온화하다, 온순하다, 명랑하다, 재미있다, 호탕

형 용 사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 요 도(A)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중 요 도(B)	r_{AB}	$t_{\bar{x}_A - \bar{x}_B}$
신중하다	3.36 (1.38)	1.35 (2.39)	.188	8.04**
현명하다	2.83 (1.85)	.41 (2.58)	.402**	9.78**
성실하다	2.80 (1.81)	2.70 (2.17)	.200*	.40
정직하다	2.70 (2.09)	2.20 (2.47)	-.650**	1.47
슬기롭다	2.63 (1.89)	.34 (2.32)	.318**	9.31**
틀림없다	2.29 (2.88)	.01 (2.62)	.051	6.07**
완벽하다	2.27 (2.19)	-.73 (2.56)	.195*	10.01**
다정하다	2.23 (2.22)	2.69 (2.00)	.139	-1.67
꾸밈없다	2.17 (1.94)	2.38 (2.26)	.403**	-1.46
철저하다	2.17 (2.29)	-.84 (2.57)	.139	9.51**
착실하다	2.12 (1.83)	1.42 (2.18)	.144	2.68**
유능하다	2.05 (1.89)	1.26 (2.36)	.247*	12.69**
날카롭다	1.99 (2.31)	-.20 (2.87)	.154	6.51**
훌륭하다	1.96 (2.28)	-.30 (2.56)	.339**	8.18**
똑똑하다	1.95 (1.84)	-1.09 (2.34)	.172	11.30**
명리하다	1.92 (2.14)	-.31 (2.58)	.144	7.25**
빈틈없다	1.92 (2.19)	-.27 (2.50)	.319**	8.05**
상냥하다	1.91 (2.19)	2.68 (1.80)	.174	-3.01**
비범하다	1.84 (2.28)	-.61 (2.61)	.178	7.87**
치밀하다	1.79 (2.19)	-.73 (2.68)	.164	8.03**
친절하다	1.72 (1.97)	2.42 (1.95)	.317**	-3.09**
아무지다	1.52 (2.02)	-.18 (2.46)	.215*	6.07**
꼼꼼하다	1.50 (2.03)	-.45 (2.25)	.362**	8.12**
인자하다	1.50 (2.24)	2.58 (1.91)	.090	-3.88**
근면하다	1.15 (2.18)	.45 (2.61)	.437**	2.75**
온화하다	1.13 (2.25)	2.19 (1.98)	.238**	-4.09**
민감하다	.97 (2.31)	.37 (2.64)	.267**	2.01*
너그럽다	.92 (2.32)	2.48 (1.88)	.273**	-6.16**
자애롭다	.84 (2.25)	2.38 (2.10)	.303**	-6.05**
에민하다	.67 (2.37)	.13 (2.69)	.255**	1.76
청렴하다	.50 (2.78)	-.03 (2.31)	.317**	1.78
고매하다	.39 (2.35)	-1.13 (2.09)	.349**	6.04**
온순하다	.27 (2.12)	1.61 (2.00)	.279**	-5.47**
곧곧하다	.19 (2.56)	.21 (2.54)	.103	-.06
호탕하다	-.04 (2.29)	1.12 (2.31)	.268**	-4.21**
고고하다	-.05 (2.68)	-.66 (2.61)	.284**	1.95
묵직하다	-.06 (1.99)	-.06 (2.20)	.367**	.00
명량하다	-.13 (2.57)	1.34 (2.20)	.197*	-4.89**
뜻뜻하다	-.16 (2.40)	-1.08 (2.16)	.092	3.02**
구수하다	-.25 (2.41)	.83 (2.31)	.290**	-3.88**
순박하다	-.26 (2.09)	.91 (2.40)	.195*	-4.13**
소박하다	-.28 (2.39)	.40 (2.38)	.284**	-2.41**
묵묵하다	-.31 (2.28)	-.13 (2.35)	.580**	-.86
엄격하다	-.33 (2.37)	-1.24 (2.25)	.226*	3.20**
재미있다	-.43 (2.42)	1.17 (2.30)	.293**	-5.78**
근덕하다	-.47 (2.70)	-.83 (2.70)	.106	1.01
수단좋다	-.63 (2.58)	-1.23 (2.42)	.264**	2.00*
평범하다	-.85 (2.03)	.06 (2.11)	.267**	-3.67**
털털하다	-1.03 (2.19)	-.13 (2.42)	.317**	-3.37**
강경하다	-1.05 (2.56)	-.42 (3.07)	.275**	-1.86
팔팔하다	-1.33 (2.04)	.83 (2.61)	.263**	-7.63**
덤덤하다	-1.38 (2.09)	-.48 (2.16)	.210*	-3.40**
단순하다	-1.64 (1.91)	.43 (2.58)	.092	-6.82**

△ -5 ~ +5의 11점 척도에서 얻은 중요도치임.

* t 값이 正的인 단어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知的 特性, 負的인 단어중 유의미한 차이
이를 보이는 것은 情的 特性을 나타내는 단어라 볼 수 있음.

* 5% 有義水準(r 의 $df=102$, 兩方; t 의 $df=101$, 兩方)

** 1% 有義水準(r 의 $df=102$, 兩方; t 의 $df=101$, 兩方)

하다, 순박하다, 구수하다, 팔팔하다, 단순하다, 소박하다, 평범하다, 텅텅하다, 덩덩하다 들로 모두 대인관계와 관련된 情的 特性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성희(1982)의 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 결과에서의 지적 특성은 金의 제 2 요인인 능력요인(ability factor)과 일치하고, 정적 특성은 제 3 요인인 친호요인(likability factor)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 두 결과의 이러한 일치하는 우리말 인물평가형용사도 Rosenberg, Nelson 과 Vivekananthan(1968)의 결과에서와 같이 지적 평가 특성과 정적(사회적) 평가 특성으로 나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위의 53개 형용사의 두 상황에서의 중요도 평균치를 기초로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치와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치 사이의 전체 상관이 $r = .247$ 로서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이 되지 못하고 있다($t = 1.82, df = 52, p > .05$)는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즉, 이 두 차원의 평가특성은 서로 관계가 없는 독립차원인 것이다.

또, 위의 표에서 103명의 피험자들이 53개 형용사 각각에 대해 평정한 두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 사이의 상관을 각 형용사별로 계산한 것이 제3란에 r_{AB} 로서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37개 형용사(전체의 69.8%)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16개(전체의 30.2%)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표 2〉 상관계수 분포
범위 및 빈도

상관계수범위	빈도
.500 이상	1
.400 ~ .499	3
.300 ~ .399	10
.200 ~ .299	19
.100 ~ .199	14
.000 ~ .099	5
-.001 이하	1

이들 53개 형용사의 두 중요도 사이의 상관은 $-.650 \sim .580$ 사이에 걸쳐서 분포되고 있고, 그 중앙치는 $r = .263$ 이다. 다음 〈표 2〉는 이러한 상관계수의 분포를 정리해 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면, $r = .400$ 이상의 상관을 보이고 있는 형용사는 4개뿐이고, 반면 $r = .100$ 이하인 형용사는 20개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보면, 53개 형용사의 두 중요도치 사이의 상관은 형용사 간에 차이가 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實 驗 II

실험 I에서는 효과의존상황에서 보다는 정보의존상황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적 특성과 반대로 정보의존상황에서 보다는 효과의존상황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정적 특성이 구분되었다. 이를 서두에서 언급된 대인기억 연구 결과들과 결부시켜 생각해 보면, 정보의존상황이라는 도식 또는 대본을 가지

고 있을 때에는 지적 특성이 더 적절한 정보가 되고, 효과의존상황이라는 도식 또는 대본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정적 특성이 더 적절한 정보가 되는 것이라 추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보와 효과 두가지에 모두 의존하는 복합의존상황에서는 지적 특성과 정적 특성이 모두 적절한 정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적 특성 형용사와 정적 특성 형용사를 합쳐 하나의 대상인물을 구성해 놓고, 정보의존상황, 효과의존상황 및 복합의존상황에서 각각 인상판단을 시키면, 전자의 두가지 경우에는 각각 지적 특성의 기억량과 정적 특성의 기억량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크겠지만, 복합의존상황에서는 두가지 특성의 기억량에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극대상인물에 대한 인상판단을 하게 하지 않고, 단순히 대상인물의 특성을 기억하도록만 하면(기억조건), 두 특성의 기억량에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련된 몇가지 예언을 회상량, 재인확신도, 군집화정도의 종속측정치들 통해 확인해 보려 하였다. 이러한 예언은 이러한 종속측정치들에 있어서의 상황조건(기억조건 포함)과 두 특성에 대한 기억량의 상호작용으로 검출될 수 있을 것이다.

方 法

被驗者 서강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90명이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22~23명씩 4 조건(정보의존 상황조건, 효과의존 상황조건, 복합의존 상황조건, 기억조건)으로 구분되어, 실험자와 미리 정한 편리한 시간에 슬라이드 환등기를 볼 수 있도록 된 시청각실에서 집단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 중 재인확신도 평정에 누락이 있었거나, 회상량이 3개 미만인 학생 10명을 제외하고, 각 조건 20명씩 모두 80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刺戟材料 選定 및 製作 실험 I의 결과에서 밝혀진 지적 특성 단어와 정적 특성 단어 중에서 해당되는 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의 분포범위와 평균치 및 張(1978)의 자료에서의 호오도치와 화친도치의 분포범위와 평균치가 대체로 비슷하도록 하여 각각 12개씩 모두 24개의 단어를 자극재료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단어는 아래와 같으며, 그 각각의 척도치의 분포범위와 그 평균치는 <표 3>과 같다.

知的 特性; 신중하다, 현명하다, 틀림없다, 철저하다, 착실하다, 훌륭하다, 빈틈없다, 영리하다, 비범하다, 야무지다, 근면하다, 유능하다.

情的 特性; 상냥하다, 인자하다, 너그럽다, 친절하다, 자애롭다, 온화하다, 명랑하다, 온순하다, 호탕하다, 순박하다, 구수하다, 팔팔하다.

〈표 3〉 특성별 각 척도치 평균과 그 분포범위

특성	척도치 구분	정보의존상황 중요도 ¹⁾	효과의존상황 중요도 ¹⁾	호 오 도 ²⁾	화 친 도 ²⁾
		$\bar{X}$ 분포범위	$\bar{X}$ 분포범위	$\bar{X}$ 분포범위	$\bar{X}$ 분포범위
지적특성		2.10 3.36~1.24	-.09 1.35~-1.26	1.70 .68~2.31	1.48 .47~2.10
정적특성		.52 1.91~-1.33	1.85 2.68~.83	1.76 .58~2.20	1.78 .53~2.07

¹⁾ - 5 ~ + 5 의 11점 척도에서 얻은 척도치임

²⁾ - 3 ~ + 3 의 7점 척도에서 얻은 척도치임

슬라이드 환등기로 자극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들 단어들을 한매에 하나씩 모두 24매의 슬라이드로 제작하여 본 실험의 자극제시용 재료로 사용하였다.

應答用 小冊子 作成 응답용 소책자는 표지, 제 1 주의분산과제(distracting task)용 백지, 자유회상용 백지, 제 2 주의분산과제용 백지 등 4 장의 백지와 3 장의 재인확신도 평정척 등 모두 7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재인확신도 평정척에 사용된 단어는 앞의 실험 I 에서 사용된 53 개의 형용사이었다. 그러므로 24 개의 제시자극과 29 개의 혼란자극(distractor)으로 재인확신도 평정척이 구성된 셈이다.

이들 단어들을 18 개씩(맨 마지막 장은 17 개) 3 페이지에 걸쳐 무선적으로 인쇄하고, 각 형용사마다 0 % ~ 100 %의 11 점 평정척도를 그려 넣었다. 이때 각 장마다 1, 7, 13 번째 단어의 평정척에는 0 %부터 100 %까지 10 단위로 숫자를 적어 넣고, 그 위에 “확신성의 정도”라고 써 넣었다.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의 평정척에는 각 숫자에 해당되는 짧은 가로선만으로 표시를 해 주었다.

節次 실험은 4 개의 조건으로 나뉘어, 각 조건 22 ~ 23 명씩 집단적으로 슬라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시청각실에서 진행되었다.

피험자들이 실험실에 입장하여 좌석이 정돈되면 곧이어 응답용 소책자를 배부하였다. 이는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펼쳐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실험조건에 따른 지시를 해 주었다. 지시문은 의존상황조건과 기억조건이 서로 달랐는데, 의존상황조건에게 주어진 지시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실험은 인상형성에 관한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타인의 여러가지 특성들을 보고, 이 특성들을 통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 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라도 서로 다르게 인상을 형성하는 수가 많습

니다. 이 실험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상을 평가해 내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다음에 슬라이드로 제시되는 바와 같은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에 대한 인상을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즉, 여러분이 ()라는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주실 일은 여러분이 ()라는 상황에서 만난 A라는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해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처한 ()라는 상황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이 상황에서 만난 A라는 사람의 여러가지 특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괄호 속의 내용은 의존조건에 따라 서로 달랐다. 정보의존상황조건에는 “어떤 책을 선택해서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효과의존상황조건에는 “다른 사람에게 헌혈을 권유하려 할 때”라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복합의존상황조건에는 필자의 선행연구(趙, 1982 a, 연구 1)에서 정보와 효과 두가지에 모두 의존하는 상황으로 검증된 “작업결과 얻어질 공동이익을 분배할 공동작업자를 찾을 때”라는 내용이 주어졌다. 이 세 조건에서는 피험자들에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인식케 하기 위해 실험자가 이 각각의 상황을 슬라이드가 제시될 전편의 칠판에 쓰고, 이를 응답용 소책자의 표지에 적어 넣도록 하였다. 이와는 달리 기억조건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시가 주어졌다.

이 실험은 대인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타인이 가진 여러가지 특성들을 보고, 이를 얼마나 많이 기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슬라이드를 통해 A라는 사람의 여러가지 특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시되는 특성들을 하나하나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가능한 한 A라는 사람에 대한 특성들을 정확하게 많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순서대로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지시문을 준 후, 곧이어 슬라이드 환등기로 무선적으로 뒤섞은 24개의 자극어를 제시하였다. 이때 슬라이드 환등기에는 3초간 자극어가 제시되고, 다음 자극어로 넘어가는데 1초가 걸리도록 된 自動計時機가 부착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극어를 3초간씩 제시하고 자극어 사이에 1초씩의 이행시간이 있었으므로, 자극 제시에 모두 약 1분 35초 정도가 소요된 셈이다.

슬라이드의 제시가 끝난 다음 곧 바로 제 1 주의분산과제를 응답용 소책자의 둘째 페이지에 하도록 하였다. 이는 28756에서 계속해서 7씩 빼가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4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 주의분산과제는 최고의 속

도로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뒤의 회상에 미칠 단기기억의 효과와 피험자들이 할지도 모를 제시자극의 반복암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다음 응답용 소책자의 셋째 페이지에 앞에 제시된 특성들을 自由回想토록 하였다. 이에 3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약 2분이 지나면 회상해내는 특성의 수가 매우 적었다.

자유회상 후 곧이어 응답용 소책자의 넷째 페이지에 제 2 주의분산과제를 하도록 하였다. 이는 25에 7씩 계속 더해가는 것이었는데, 3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 제 2 주의분산과제도 피험자들에게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하도록 하였는데, 그 목적은 제 1 주의분산과제와 같았다.

그 다음으로 재인확신도의 평정척을 설명해 주고 곧바로 재인확신도를 평정토록 하였다. 이는 시간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평균 3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러한 전 과정의 실험을 진행하는데 대략 25분이 소요되었으며, 실험도중 좌석정돈, 응답용지의 배부와 회수, 자극제시에 1명의 실험조수의 도움을 받았다.

實驗設計 실험은 4(3개의 의존상황조건과 기억조건)×2(지적·정적 특성)에서 뒤의 요인이 반복된 요인설계로 진행되었다.

結果 및 解釋

본 실험의 종속측정치는 각 조건 피험자들이 지적 특성과 정적 특성에 대해 수행해낸 회상량, 재인확신도, 회상결과를 기초로 계산해낸 군집화정도의 세 가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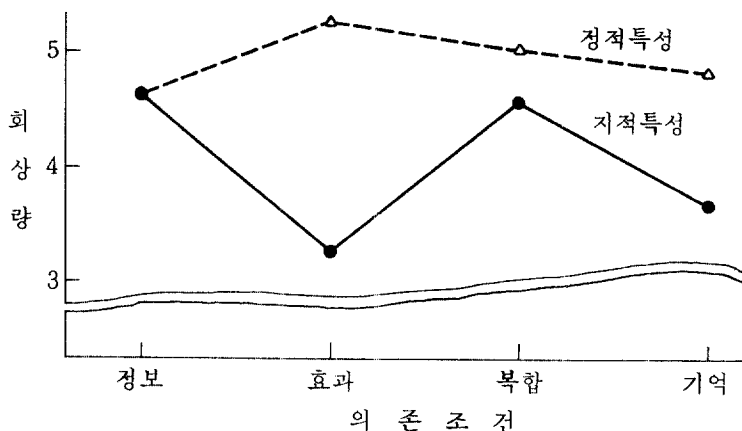
回想量の差異 각 조건의 피험자별로 正回想해낸 지적 특성 자극어와 정적 특성 자극어의 수를 회상량의 지표로 삼았다. 이때 誤回想된 단어는 제외하였다. 각 특성의 자극어 수가 12개씩이었으므로, 각 특성별 회상량 최대치는

〈표 4〉 각 조건 특성별 회상량 평균·상관 및 그 차이(괄호안은 SD)

실험조건	정보의존	효과의존	복합의존	기 억
지적특성(I)	4.60(1.35)	3.15(1.46)	4.45(1.43)	3.80(1.74)
정적특성(A)	4.60(1.47)	5.15(1.46)	5.05(1.39)	4.90(1.55)
합(T)	9.20(1.79)	8.30(2.13)	9.50(1.67)	8.70(2.58)
$r_{I \cdot A}$	-.191	.063	-.302	.227
$t_{\bar{x}_I - \bar{x}_A}$	.00	-4.36**	-1.18	-2.34*

* 5% 有義水準($df=19$, 兩方)

** 1% 有義水準($df=19$, 兩方)



〔그림 1〕 각 조건에 따른 두 특성 회상량

12이었으며, 각 피험자별 총회상량의 최대치는 24이었다.

각 조건별로 두 특성에 대한 회상량의 평균치와 그 상관계수 및 두 평균치의 차이검증결과는 <표 4>와 같고, 이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의 <그림 1>과 같다.

이 표와 그림에서 보면, 정보의존조건과 복합의존조건에서는 두 특성의 회상량에 아무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t_{\text{정보}} = .00$, $t_{\text{복합}} = -1.18$, $df = 19$, $p > .05$). 그러나, 효과의존조건과 기억조건에서는 정적 특성의 회상량이 지적 특성의 그것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_{\text{효과}} = -4.36$, $df = 19$, $p < .01$; $t_{\text{기억}} = -2.34$, $df = 19$, $p < .05$).

이러한 의존조건에 따른 두 특성의 회상량의 차이는 위의 결과를 변량분석한 다음 <표 5>에서 검증되고 있다.

<표 5> 각 조건별 두 특성 회상량의 변량분석 결과

변 량 원	자 승 화	자 유 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171.77	79		
상황(A)	8.47	3	2.82	1.32
오차(a)	163.30	76	2.14	
집단내	228.00	80		
자극어특성(B)	34.22	1	34.22	15.10**
A × B	21.48	3	7.16	3.16*
오차(b)	172.30	76	2.27	

* 5%有義水準

** 1%有義水準

위의 <표 5>에서 보면, 의존상황과 자극어 특성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F = 3.16$, $df = 3/76$, $p < .05$). 이러한 결과는 상황 조건에 따라 두 특성의 회상량이 다를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표 5>에서 보면 자극어 특성의 주효과가 의미있는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F = 15.10$, $df = 1/76$, $p < .01$). 이는 지적 특성의 전반적인 회상량(4.00)보다 정적 특성의 그것(4.93)이 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표 4>에서 보듯이 정보의존조건과 복합의존조건을 제외하고, 효과의존조건과 기억조건에서 모두 정적 특성의 회상량이 지적 특성의 그것보다 유의미하게 큰 데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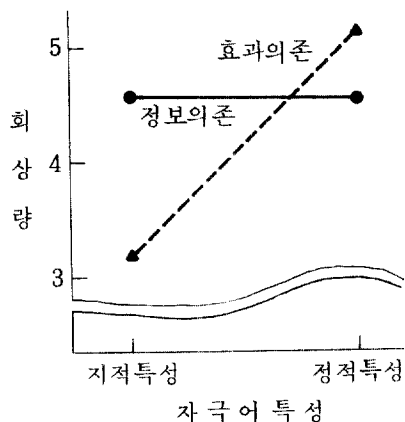
여기서 기억조건의 경우 이는 본 실험에서 통제집단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조건에서는 두 특성의 회상량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었다. 그런데, 본 실험 결과에서 이 기억조건에서의 정적 특성에 대한 회상량이 지적 특성의 그것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두 특성간의 기준 기억유용성(availability for memory)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적 특성은 본래 화친차원 인상의 단서특성이므로(趙, 1982 a, b, 1983, 1984) 이는 지각자의 대상인물에 대한 주관적인 행동정향 판단의 기초가 되는 특성이어서 지각자의 自我關與(ego involvement) 수준이 높은 특성임에 반하여, 지적 특성은 대상인물에의 객관적 인상을 판단하는 단서 특성이어서 비교적 지각자의 자아관여수준이 낮은 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자의 기억유용성이 후자의 그것보다 높은 데서 나온 결과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본 결과에서 정보의존조건의 경우 지적 특성의 회상량이 정적 특성의 그것과 같게 나왔다는 것은(<표 4>참조), 이 조건에서는 정보의존상황을 설정하므로써 지적 특성에 대한 자아관여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이므로써 지적 특성의 회상량을 고양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억조건과 정보조건의 지적 특성의 회상량(3.80 : 4.60)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 = -1.69$, $df = 38$, $p < .05$)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 두 조건의 정적 특성 회상량(4.90 : 4.60) 간에는 아무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t = .63$, $df = 38$, $p > .05$).

또한, 기억조건과 효과의존조건의 지적 특성 회상량(3.80 : 3.15)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검출되고 있으며($t = 1.99$, $df = 38$, $p < .05$), 정적 특성 간에는(4.90 : 5.15)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 = .53$, $df = 38$, $p > .05$). 이는 효과의존상황의 설정에 의해 정적 특성에 대한 자아관여

* 이는 車載浩교수와의 의견교환에서 시사받은 것으로 이에 감사드린다.

수준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지적 특성에 대한 그것은 더욱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와 같은 해석은 정보의존조건과 효과의존조건 간의 비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이 두 조건의 지적 특성의 회상량(4.60 : 3.15)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t = 3.29$, $df = 38$, $p < .01$), 정적 특성의 회상량(4.60 : 5.15)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t



(그림 2) 두 조건별 각 특성 회상량

$= -1.11$, $df = 38$, $p > .05$). 이는 이 두 조건에서의 두 특성의 회상량만을 그림으로 표시한 <그림 2>에서 보듯이, 두 의존조건에 따른 두가지 특성의 회상량의 교차방향이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두 조건의 회상량만을 변량분석한 결과, 의존조건과 자극어 특성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었다($F = 9.16$, $df = 1/38$, $p < .01$)는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의 기본 가설을 지지

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 실험에서 복합의존조건은 두가지 특성에 대한 자아관여수준을 모두 높은 조건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와 같은 해석에서 보면, 이 조건은 정보의존조건과 비슷한 결과를 보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적 특성은 그 자체 지각자의 자아관여수준이 높은 특성이므로 이 조건에서는 결국 지적 특성에의 자아관여수준을 높였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복합의존조건과 정보의존조건의 회상량은 지적 특성(4.45 : 4.60) 간에서나($t = .34$, $df = 38$, $p > .05$), 정적 특성(5.05 : 4.60) 간에서($t = .99$, $df = 38$, $p > .05$)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복합의존조건과 효과의존조건의 회상량에서는 지적 특성(4.45 : 3.15)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t = 2.84$, $df = 38$, $p < .01$), 정적 특성(5.05 : 5.15)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t = -.31$, $df = 38$, $p > .05$). 이는 정보의존조건과 효과의존조건의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과이다. 이러한 사실도 본 실험의 가설을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 얻은 지적 특성 회상량과 정적 특성 회상량을 묶은 총 회상량의 조건간 비교를 해 보면, 복합의존조건과 효과의존조건의 총회상량(9.50 : 8.30) 간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뿐($t = 1.98$, $df = 38$, $p < .05$), 정보의존조건과 효과의존조건 간에서나($t = 1.45$, $df = 38$, $p > .05$), 복합

의존조건과 정보의존조건 간에서($t = .75, df = 28, p > .05$)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또한, 기억조건과의 비교에서도 어느 의존조건의 총회상량 간에서나 유의미한 차이가 밝혀지지 않았다($t_{\text{기억:정보}} = -.71, t_{\text{기억:효과}} = .53, t_{\text{기억:복합}} = -1.16, df = 38, p > .05$). 즉, 대체로 총회상량에 있어서는 조건간에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이다.

再認確信度の差異 각 조건 피험자별로 자극어로 제시된 지적 특성 단어와 정적 특성 단어에 대한 재인확신도를 0~10의 11점 척도로 환적하여 그 합산점수를 재인확신도의 지표로 삼았다. 이때 29개의 혼란자극의 평정치는 제외하였다. 각 특성의 자극어 수가 12개씩이었으므로, 각 특성별 재인확신도 점수의 범위는 0~120이었으며, 각 피험자별 총재인확신도의 점수범위는 0~240이었다.

각 조건별로 두 특성에 대한 재인확신도의 평균치와 그 상관계수 및 두 평균치의 차이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각 집단 재인확신도 평균·상관 및 차이(괄호안은 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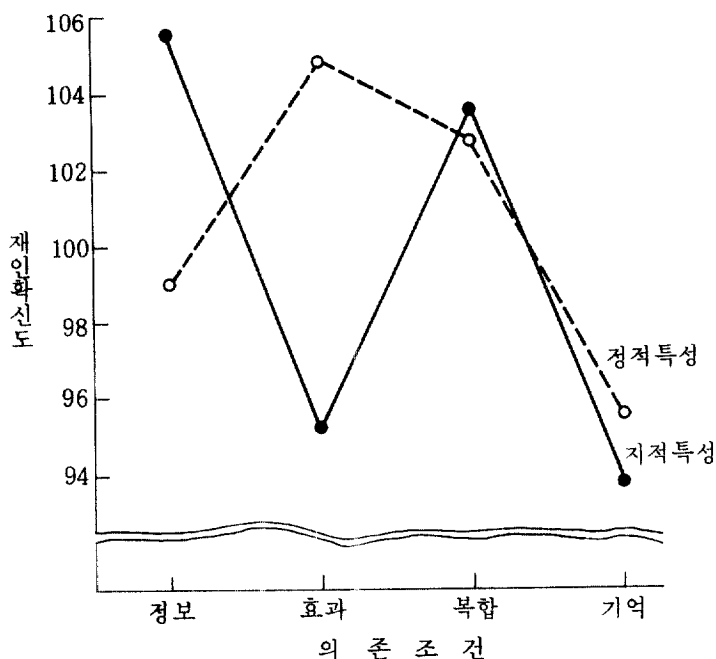
실험조건	정보의존	효과의존	복합의존	기억
지적특성(I)	105.60(10.95)	95.35(18.11)	103.60(10.14)	93.85(14.00)
정적특성(A)	99.05(17.08)	104.75(13.55)	102.85(12.47)	95.60(12.01)
합(T)	204.65(21.92)	200.10(28.39)	206.45(18.14)	189.45(18.41)
$r_{I.A}$	.184	.600**	.279	-.005
$t_{\bar{x}_I - \bar{x}_A}$	1.54	-2.78**	.05	-.41

** 1% 유의수준(r 의 $df = 18$, 兩方; t 의 $df = 19$, 一方)

위의 표에서 보면, 효과의존조건에서는 정적 특성의 재인확신도가 지적 특성의 그것보다 유의미하게 높다($t = -2.78, df = 19, p < .01$). 반대로 정보의존조건에서는 지적 특성의 재인확신도가 정적 특성의 재인확신도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에는 이르고 있지 못하다($t = 1.54, df = 19, p > .05$). 이에 비해 복합의존조건($t = .05, df = 19, p > .05$)과 기억조건($t = -.41, df = 19, p > .05$)에서는 두 특성의 재인확신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경향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각 조건별 두 특성 재인확신도의 이러한 차이는 위의 결과를 변량분석해 본 다음 <표 7>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표 7>에서 보면, 상황조건과 자극어 특성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F = 3.21, df = 3/76, p < .05$). 이는 상황조건에 따라 두가지



[그림 3] 각 조건에 따른 두 특성 재인확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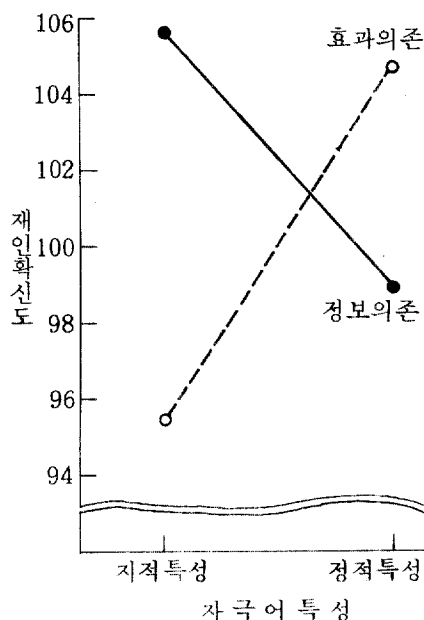
<표 7> 각 조건별 두 특성 재인확신도의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20310.44	79		
상황(A)	1744.32	3	581.44	2.38
오차(a)	18566.12	76	244.29	
집단내	11705.50	80		
자극어특성(B)	37.06	1	37.06	—
A×B	1311.81	3	437.27	3.21*
오차(b)	10356.63	76	136.27	

* 5%有義水準

특성의 재인확신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상황조건 간의 두가지 특성 각각의 재인확신도의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보의존조건과 효과의존조건을 비교해 보면, 지적 특성의 경우 전자의 재인확신도(105.60)가 후자의 그것(95.35)보다 유의미하게 높다($t=2.17$, $df=38$, $p<.05$). 그리고, 이 두 조건의 정적 특성의 경우 정보의존조건 재인확신도(99.05) 보다는 효과의존조건 재인확신도(104.75)이 높은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t=-1.17$, $df=38$, $p>.05$).



[그림 4] 두 조건별 각 특성
재인확신도

이는 이 두 조건에서의 두 특성의 재인 확신도만을 그림으로 표시한 옆의 <그림 4>에서 보듯이, 두 의존조건에 따른 두 가지 특성의 재인확신도의 교차방향이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 두 조건의 재인확신도만을 변량분석한 결과, 의존조건과 자극어 특성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었다($F = 9.08, df = 1/38, p < .01$)는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의 기본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본 실험에서의 의존상황의 설정에 의해 각 의존상황에 적절한 단서 자극이 되는 특성들에 대한 주의수준을 높인 결과라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재인검사는 변별검사이기 때문에 (Srull, 1984), 이에서의 수행차는 주의수준의 차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각 의존조건과

본 실험에서 통제조건으로 설정된 기억조건 — 이는 어떤 특성에 대한 주의수준도 고양시키지 않은 집단이라 볼 수 있다 — 과의 비교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우선 기억조건과 정보의존조건을 비교해 보면, 정적 특성의 재인확신도 (95.60 : 99.05)는 두 조건에서 아무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t = -.74, df = 38, p > .05$), 지적 특성의 재인확신도는 정보의존조건 (105.60)에서 기억조건 (93.85)에서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t = 2.96, df = 38, p < .01$).

반대로 기억조건과 효과의존조건에서 보면, 지적 특성의 재인확신도 (93.85 : 95.35)는 두 조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 ($t = -.29, df = 38, p > .05$), 정적 특성의 재인확신도는 효과의존조건 (104.75)에서 기억조건 (95.60)에서보다 훨씬 크다 ($t = 2.26, df = 38, p < .05$).

이에 비해 두 가지 특성 모두에 대한 주의수준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복합조건과 기억조건을 비교해 보면, 지적 특성 (103.60 : 93.85)에서나 ($t = 2.52, df = 38, p < .01$), 정적 특성 (102.85 : 95.60)에서나 ($t = 1.87, df = 38, p < .05$) 복합조건의 재인확신도가 기억조건에 비해 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의존상황의 설정에 의해 해당 단서특성에의 주의수준을 높이는 위에서의와 같은 효과는, 정보의존상황의 설정에 의해 지적 특성에의 주의수준을

높이는 것이 효과의존상황의 설정에 의해 정적 특성에의 주의수준을 높이는 것 보다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복합의존조건과 정보의존조건의 비교에서는 지적 특성(103.60 : 105.60)에서나 정적 특성(102.85 : 99.05)에서 재인확신도에 차이가 없으나(각각 $t = -.60$, $t = .99$, $df = 38$, $p > .05$), 복합의존조건과 효과의존조건의 비교에서 보면, 정적 특성(102.85 : 104.75)에서는 재인확신도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t = -.46$, $df = 38$, $p > .05$), 지적 특성에서는 복합의존조건의 재인확신도(103.60)가 효과의존조건의 그것(95.35)보다 유의미하게 높다($t = 1.78$, $df = 38$, $p < .05$)는 사실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회상량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정적 특성의 기억 유용성이 지적 특성의 그것보다 기본적으로 큰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 얻은 지적 특성 재인회상량과 정적 특성 재인회상량을 묶은 총재인회상량의 조건간 비교를 해 보면, 의존상황조건 간에는 아무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t_{\text{정보:효과}} = .57$, $t_{\text{복합:정보}} = .31$, $t_{\text{복합:효과}} = .84$, $df = 38$, $p > .05$). 그러나, 기억조건과 의존상황조건을 비교해 보면, 정보의존조건과 복합의존조건에서는 기억조건보다 총재인회상량이 유의미하게 높다($t_{\text{정보:기억}} = 2.37$, $df = 38$, $p < .05$; $t_{\text{복합:기억}} = 2.94$, $df = 38$, $p < .01$). 또한, 효과의존조건의 총재인회상량(200.10)도 기억조건의 그것(189.45)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이르고 있지 못하다($t = 1.41$, $df = 38$, $p > .05$).

群集化程度의 差異 지각자가 타인에 대한 정보를 조직화하는 양상은 후에 이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범주군집화(category clustering)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군집화현상은 對人情報가 조직화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Strom, Pryor, & Simpson, 1981), 자유회상방법에 의해 대인기억의 양상을 분석하는 자료의 장점은 바로 이러한 군집화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Srull, 1984). 본 실험에서도 자유회상 자료를 분석하여 각 실험조건에서의 자극어 특성에 따른 군집화정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이러한 군집화의 지표로는 Bousfield와 Bousfield(1966)의 SCR(stimulus category clustering)과 Roenker, Thompson과 Brown(1971)이 SCR의 단점을 보완하여 제시한 ARC(adjusted ratio of clustering)가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SCR을 지표로 하여 군집화정도를 계산하였다. 그 이유는 Roenker 등(1971)의 ARC는 SCR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이 두 지표 사이의 상관인 .90 이상이 되므로(Simpson, 1979, in Ostrom, Pryor, & Simpson, 1981) 비교적 계산이 간단한 SCR로 계산해도 ARC지표나 차이가 별로 없고, 또한 SCR지표에 의해서는 지적 특성과 정적 특성의

SCR지표를 분리하여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SCR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SCR_i = O(SCR_i) - E(SCR_i)$$

$$E(SCR_i) = m_i(m_i - 1) / n$$

[O(SCR_i) = i범주에서 관찰된 반복회상수,

E(SCR_i) = i범주에서 우연적으로 기대되는 반복회상수,

m_i = i범주의 회상량, n = 총회상량]

본 실험에서는 자유회상의 결과에서 지적 특성과 정적 특성 별로 위의 공식에 의한 SCR을 모든 피험자에게서 계산해내어 군집화정도의 분석자료로 삼았다. 이렇게 얻은 각 조건에서의 특성별 군집화정도의 평균치, 상관 및 그 차이검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각 집단 군집화정도(SCR) 평균·상관 및 차이(괄호안은 SD)

실험조건	정보의존	효과의존	복합의존	기 역
지적특성(I)	1.16(.52)	.70(.71)	1.23(.53)	99(.82)
정적특성(A)	1.21(.48)	1.19(.54)	1.32(.39)	1.32(.66)
합(T)	2.37(.83)	1.89(1.09)	2.55(.80)	2.31(1.37)
$r_{I \cdot A}$	.372	.516*	.519*	.712**
$t_{\bar{x}_I - \bar{x}_A}$	-.39	-3.38**	.84	-2.48*

* 5%有義水準(r 의 $df=18$, 兩方; t 의 $df=19$, 兩方)

** 1%有義水準(r 의 $df=18$, 兩方; t 의 $df=19$, 兩方)

이 표에서 보면, 자극어 특성에 따른 각 조건별 군집화정도의 결과는 앞의 <표 4>의 회상량의 결과와 대체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는 SCR이 자유회상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얻어진 지표인 때문이다. 위의 <표 8>에서 보면, 정보의존조건과 복합의존조건에서는 두 특성의 SCR에 아무런 차이를 보이고

<표 9> 각 조건별 두 특성 SCR 변량분석 결과

변 량 원	자 승 화	자 유 도	평균자승화	F
집 단 간	44.05	79		
상 황(A)	2.30	3	.77	1.40
오 차(a)	41.75	76	.55	
집 단 내	15.00	80		
자극어 특성(B)	2.27	1	2.27	15.13**
A × B	1.25	3	.42	2.80*
오 차(b)	11.48	76	.15	

* 5% 有義水準

** 1% 有義水準

있지 않다($t_{\text{정보}} = -.39$, $t_{\text{복합}} = .84$, $df = 19$, $p > .05$). 그러나, 효과의존조건과 복합의존조건에서는 정적 특성의 SCR이 지적 특성의 그것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_{\text{효과}} = -3.38$, $df = 19$, $p < .01$; $t_{\text{기억}} = -2.48$, $df = 19$, $p < .05$).

이러한 의존조건에 따른 두 특성의 SCR의 차이는 위의 결과를 변량분석한 위의 <표 9>에서 검증되고 있다.

위의 <표 9>에서 보면, 의존상황과 자극어 특성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F = 2.80$, $df = 3/76$, $p < .05$). 이러한 결과는 상황조건에 따라 두 특성의 SCR 즉 군집화정도가 다를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표 9>에서 보면, 회상량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극어 특성의 주효과가 의미있는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F = 15.13$, $df = 1/76$, $p < .01$). 이는 지적 특성의 전반적인 SCR(1.02)보다는 정적 특성의 SCR(1.26)이 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회상량의 결과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본 실험에서 사용된 두 특성 간의 기준 기억유용성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전반적인 정적 특성의 조직화가능성(organizability)이 지적 특성보다 큰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본 실험에서 얻은 군집화정도를 각 조건 간에 비교해 보면, 정보의존조건과 효과의존조건의 지적 특성의 SCR 간에서와($t = 2.34$, $df = 38$, $p < .05$), 복합의존조건과 효과의존조건의 지적 특성의 SCR 간에서($t = 2.67$, $df = 38$, $p < .01$), 그리고 이 두 조건의 총 SCR 간에서($t = 2.18$, $df = 38$, $p < .05$),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뿐, 나머지 조건들의 특성 간 SCR이나 총 SCR 간에는 아무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여기서 정보의존조건과 효과의존조건의 경우 지적 특성의 SCR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검출되고 있는 결과는 정보의존조건에서는 정보의존상황의 설정에 의해 지적 특성에의 주의수준이 높아져 이에 대한 조직화가 촉진된 때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적 특성은 본래 기억유용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상황조직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두 조건에서의 SCR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두 조건의 SCR만을 변량분석한 결과 상황과 자극어 특성의 상호작용이 역시 유의미하게 검출되고 있다($F = 5.33$, $df = 1/38$, $p < .05$)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또한, 복합의존조건과 효과의존조건의 지적 특성 SCR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복합의존조건은 두 특성 모두에 대한 주의수준을 높인 조건으로, 이 조건에서는 기준 기억유용성이 높은 정적 특성에 대해서 보다는 그것이 낮은 지적 특성에 대한 주의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효과의존조건에서는 지적 특성에 대한 주의수준은 낮은 상태대로 있었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나고 있

는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실험의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본 실험의 기본 가설이 지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보의존상황에서는 지적 특성에 대한 기억촉진 효과가 나타났고, 효과의존상황에서는 정적 특성에 대한 기억촉진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단, 본 실험에서 실험재료로 사용한 지적 특성 자극어와 정적 특성 자극어가 기준 기억유용성에 차이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에서와 같은 해석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기준 기억유용성의 차이는 특히 자유회상의 결과에 두드러진 상쇄효과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실험에서 자극어를 선정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實 驗 Ⅲ

실험Ⅱ에서는 정보의존상황이라는 도식에서 인상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적 특성에 대한 기억이 촉진되고, 효과의존상황이라는 도식에서 인상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정적 특성에 대한 기억이 촉진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필자(趙, 1982a)의 대인평가차원의 이원모형에서는 타인에 대한 정보의존의 상황에서는 그에 대해 객관적인 好惡次元에서 인상형성이 이루어지고, 동일한 대상인물에 대한 효과의존의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주관적인 행동정향을 판단하는 和親次元에서 인상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호오차원의 인상판단은 지적 특성을 주요 단서로 하여 이루어지고, 화친차원의 인상판단은 정적 특성을 주요 단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추리가 성립되며, 이러한 사실은 필자의 실험들(趙, 1982a 연구 5, 1982b, 1983)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호오차원이라는 인상도식에서는 지적 특성에 대한 기억량이 촉진되고, 화친차원이라는 인상도식에서는 정적 특성에 대한 기억량이 촉진될 것이라는 추리가 가능하며, 이러한 추리 또한 필자의 선행연구(趙, 1984)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서두에서 지적한 대로 이 실험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실험은 실험Ⅱ에 이어 필자의 선행실험(趙, 1984)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즉, 지시에 의하여 호오차원 인상도식과 화친차원 인상도식을 각각 설정하였을 때, 각각 지적 특성과 정적 특성에 대한 기억의 촉진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회상량, 재인확신도 및 군집화정도의 측정치를 통해 확인하려 하였다.

方 法

被驗者 서강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75명이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25명씩 3조건(호오차원인상조건, 화친차원인상조건, 기억조건)으로 구분되었으며, 실험자와 미리 정한 편리한 시간에 슬라이드 환등기를 볼 수 있도록 된 실험실에서 5명씩 1조로 하여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 중 재인확신도 평정에 누락한 피험자가 1명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자료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나머지 조건에서도 1명씩을 무선적으로 제외하여, 각 조건 24명씩 모두 72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刺激材料 실험Ⅱ에서 자극어로 사용했던 24개 중에서 정적 특성의 ‘팔팔하다’와 지적 특성의 ‘유능하다’를 제외한 각 11개씩 모두 22개를 본 실험의 자극재료로 사용하였다. 이들 두 단어를 제외한 것은 실험Ⅱ의 절차가 끝난 후 몇 피험자에게 내성을 받은 결과 ‘팔팔하다’의 경우 다른 자극어와는 달리 文語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순전히 口語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의 88 올림픽붐 등으로 다른 자극어와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또 지적 특성의 자극어 중 중요도와 척도치를 기준으로하여 이에 대응되는 짝에 해당되는 ‘유능하다’를 제외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선정된 11개씩의 단어의 척도치 분포범위와 그 평균치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특성별 각 척도치 평균과 그 분포범위

특성 구분	척도치	정보의존상황 중요도 ¹⁾	효과의존상황 중요도 ¹⁾	호 오 도 ²⁾	화 친 도 ²⁾
	$\bar{X}$ 분포범위	$\bar{X}$ 분포범위	$\bar{X}$ 분포범위	$\bar{X}$ 분포범위	$\bar{X}$ 분포범위
지적특성	2.10 3.36~1.24	.02 1.35~- .84	1.67 .68~2.31	1.45 .47~2.10	
정적특성	.69 1.91~- .26	1.94 1.85~- .83	1.87 1.56~2.20	1.89 1.63~2.07	

1) -5 ~ +5의 11점 척도에서 얻은 척도치임

2) -3 ~ +3의 7점 척도에서 얻은 척도치임

실험Ⅱ에서 제작했던 위의 22개 자극어의 슬라이드를 자극제시용 재료로 사용하였다.

應答用 小冊子 作成 응답용 소책자는 표지, 제 1 주의분산과제용 백지, 자유회상용 백지, 제 2 주의분산과제용 Kraepelin 검사지와 3장의 재인확신도 평정척 등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두 조건의 인상판단집단(호오차원조건과 화친차원조건)의 표지에는 각각 인상판단 평정척이 제시되어 있었고, 기

억조건의 경우에는 백지였다. 인상판단 평정척은 $-10 \sim +10$ 의 21점 척도이었는데, 호오차원조건에는 이 평정척 위에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이라고 적어 넣은 다음, +10 위에 ‘아주 좋은 사람이다’, 0 위에 ‘반반이다’, -10 위에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고 적어 넣고, 나머지는 5점 간격으로 숫자만 기입하였다. 화친차원조건에는 ‘주관적(개인적)으로 볼 때 나는 이 사람을’이라고 적어 넣은 다음, +10 위에 ‘아주 좋아한다’, 0 위에 ‘반반이다’, -10 위에 ‘아주 싫어한다’라고 적어 넣고, 나머지는 5점 간격으로 숫자만 기입하였다.

제 2 주의분산과제용 Kraepelin 검사는 인접해 있는 0~9의 숫자를 계속적으로 더해 1자리 숫자만을 기입하도록 답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었다.

재인확신도 평정척은 실험Ⅱ의 것과 같았다. 이때 제시자극은 22개이었고, 혼란자극은 31개이었다.

節次 실험은 3조건으로 나뉘어 슬라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실험실에서 5명 1조씩으로 실시되었다.

실험의 절차는 실험Ⅱ와 대체로 같았는데, 다만 두 인상판단조건의 경우 자극제시 후 곧 약 10초 동안 응답용 소책자의 제일 첫 페이지의 평정척에 제시된 인물에 대해 형성한 인상을 21점 척도로 평정하게 한 것과, 자유회상 후 제 2 주의분산과제를 Kraepelin 검사로 대체한 것 만이 달랐다. 기억조건의 경우에는 자극제시가 끝난지 10초가 지난 다음 (인상판단조건에서는 이 시간 동안 인상판단을 함) 제 1 주의분산과제를 실시토록 하여 다른 조건과 전체 실험실시 시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실험 실시 전에 피험자들이 실험실에 입장하여 좌석정돈이 끝나면 곧 실험에 대한 지시를 주었다. 지시문은 각 조건마다 달랐는데, 호오차원조건을 위한 지시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 3자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 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하는 점에는 주의를 별로 기울이지 않고, ‘내가 주관적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는지 혹은 싫어할는지’하는 데 따라 인상을 형성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내가 주관적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는지 혹은 싫어할는지’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하는 판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요지 외에 두 차원의 인상을 비교하면서 객관적인 호오차원의 인상을 3번 강조하여 반복하였다.

화친차원조건의 경우에는 호오차원조건의 지시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

나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하는 구절과 “내가 주관적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는지 혹은 싫어할는지”하는 구절만을 바꾸어 넣고, 주관적인 화친차원의 인상을 평정할 것을 3번 강조하여 반복하였다.

기억조건의 지시는 실험Ⅱ와 동일하였다.

實驗設計 실험은 3(2개의 인상차원조건과 기억조건)×2(지적·정적 특성)에서 뒤의 요인이 반복된 요인설계로 진행되었다.

結果 및 解釋

본 실험의 주요 종속측정치는 실험Ⅱ와 마찬가지로 세 실험조건에서의 각 특성별 회상량, 재인확신도, SCR의 3가지이었고, 부수적으로 두 인상판단조건에서 각각 호오차원 인상평정치와 화친차원 인상평정치가 얻어졌다.

回想量の差異 각 조건의 피험자별로 誤回想된 단어를 제외하고, 正回想된 단어만을 기초로 하여 지적 특성 자극어와 정적 특성 자극어의 회상량을 산출하였다. 각 특성의 자극어 수가 11개씩이었으므로 각 특성별 회상량 최대치는 11이었으며, 피험자별 총회상량의 최대치는 22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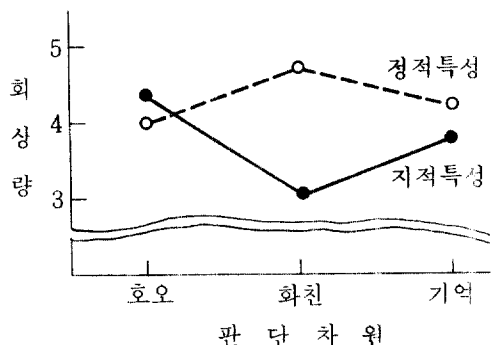
각 조건별 두 특성에 대한 회상량의 평균치와 그 상관계수 및 차이점증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각 집단 특성별 회상량 평균·상관 및 그 차이(괄호안은 SD)

실험조건	호 오 차 원	화 친 차 원	기 역
지적특성(I)	4.29(1.52)	3.08(1.82)	3.79(1.47)
정적특성(A)	4.04(1.73)	4.71(1.76)	4.21(1.56)
합(T)	8.33(2.26)	7.79(2.89)	8.00(2.45)
$r_{I \cdot A}$	-.038	.308	.303
$t_{\bar{X}_I - \bar{X}_A}$	1.05	-3.71**	-1.13

** 1% 유의수준($df=23$, 兩方)

위의 <표 11>에서 보면, 우선 기억집단에서 두 특성 회상량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1.13$, $df=23$, $p>.05$). 이는 실험Ⅱ와는 달리 본 실험에서 사용한 11개씩의 지적 특성 자극어와 정적 특성 자극어의 기준 기억유용성에 별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 표에서는 화친차원조건에서 정적 특성의 회상량이 지적 특성의 그것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3.71$, $df=23$, $p<.01$). 이에 비해, 호오차원조건에서는 지적 특성의 회상량이 정적 특성의 그것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



(그림 5) 각 조건에 따른 두 특성 회상량

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t = 1.05$, $df = 23$, $p > .05$).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옆의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 보면, 두 인상차원조건에서는 지적 특성과 정적 특성의 회상량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이는 본 실험의 기본 가설대로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이 의미있게 검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11>의 자료를 기초로 3 조건 회상량을 변량분석으로

검증해 본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각 조건별 두 특성 회상량의 변량분석 결과

변 량 원	자 승 화	자 유 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225.44	71		
차원(A)	1.79	2	.90	—
오차(a)	223.65	69	3.24	
집단내	185.50	72		
자극어특성(B)	12.84	1	12.84	5.86*
A × B	21.68	2	10.84	4.95**
오차(b)	150.98	69	2.19	

* 5% 有義水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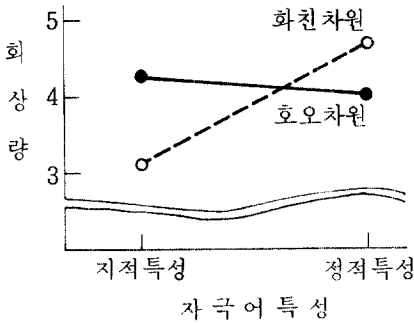
** 1% 有義水準

위의 표에서 보면, 자극어 특성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F = 5.86$, $df = 1/69$, $p < .05$). 이는 지적 특성의 전체적인 회상량(3.72) 보다는 정적 특성의 그것(4.32)이 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실험에서도 두 특성의 기준 기억유용성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의 <표 12>에서는 실험조건과 자극어 특성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F = 4.95$, $df = 2/69$, $p < .01$). 이는 실험조건에 따라 지적 특성의 회상량과 정적 특성의 회상량이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조건에 따른 두 특성별 회상량의 차이는 두 인상판단조건에서

두드러진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지적 특성의 회상량은 호오차원조건(4.29)에서가 화친차원조건(3.08)에서보다 유의미하게 크다($t = 2.50, df = 46, p < .05$). 그러나, 정적 특성의 회상량은 화친차원조건(4.71)에서가 호오차원조건(4.04)에서 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t = -1.33, df = 46, p > .05$). 이러한 두 조건의 특성별



[그림 6] 두 조건 각 특성별 회상량

회상량의 차이는 옆의 <그림 6>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 두 조건의 결과만을 분석해 보아도 실험조건과 특성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검출되었다($F = 8.92, df = 1/46, p < .01$)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의 기본 가설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다.

두 인상차원조건과 기억조건의 특성별 회상량을 비교해 보면,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는 것이 없었다(지적 특성: $t_{\text{기억:호오}} = -1.16, t_{\text{기억:화친}} = 1.49, df = 46, p > .05$; 정적 특성: $t_{\text{기억:호오}} = .38, t_{\text{기억:화친}} = -1.04, df = 46, p > .05$). 세 조건의 총회상량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_{\text{호오:화친}} = .92, t_{\text{기억:호오}} = .34, t_{\text{기억:화친}} = .27, df = 46, p > .05$).

再認確信度の差異 각 조건 피험자별로 자극어로 제시된 지적 특성 단어와 정적 특성 단어에 대한 재인확신도를 0~10점의 11점 척도로 환적하여 그 합산점수를 재인확신도의 지표로 삼았다. 이때 31개의 혼란자극의 평정치는 제외하였다. 각 특성의 자극어 수가 11개씩이었으므로, 각 특성별 재인확신도 점수의 범위는 0~110이었으며, 각 피험자별 총재인확신도의 점수범위는 0~220이었다.

각 조건별로 두 특성에 대한 재인확신도의 평균치와 그 상관계수 및 두 평균치의 차이검증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각 집단 재인확신도 평균·상관 및 그 차이(괄호안은 SD)

실험조건	호 오 차 원	화 친 차 원	기 억
지적특성(I)	95.58(12.28)	85.54(17.55)	87.42(12.73)
정적특성(A)	93.58(11.75)	85.38(15.03)	91.00(12.92)
합(T)	189.17(17.81)	170.92(27.12)	178.42(21.53)
$r_{I \cdot A}$	.098	.382	.408
$t_{\bar{x}_I - \bar{x}_A}$	.59	.04	1.23

위의 표에서 보면, 세 조건에서 모두 두 특성의 재인확신도에 아무런 차이

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보면, 호오차원조건의 재인확신도가 다른 어떤 조건의 그것보다 높다. 위의 자료를 변량분석해 본 결과, 실험 조건 간의 주효과만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F = 4.00$, $df = 2/69$, $p < .05$), 자극어 특성의 주효과($F < 1.00$)나 이 둘의 상호작용($F < 1.00$)이 모두 의미 없었다.

이러한 차이는 세 조건 간의 상호비교의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우선 호오차원조건과 화친차원조건을 비교해 보면, 지적 특성의 경우나($t = 2.30$, $df = 46$, $p < .05$), 정적 특성의 경우나($t = 2.11$, $df = 46$, $p < .05$), 총재인확신도에서($t = 2.76$, $df = 46$, $p < .01$) 모두 호오차원조건의 재인확신도가 화친차원조건의 그것보다 높다. 또한, 호오차원조건과 기억조건을 비교해 보면, 지적 특성의 경우($t = 2.26$, $df = 46$, $p < .05$)와 총재인확신도($t = 1.88$, $df = 46$, $p < .05$)에서 호오차원조건이 기억조건보다 높았고, 정적 특성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t = .72$, $df = 46$, $p > .05$). 또한, 화친차원조건과 기억집단의 비교에서는 지적 특성에서나($t = -.42$, $df = 46$, $p > .05$), 정적 특성에서나($t = -1.39$, $df = 46$, $p > .05$), 총재인확신도에서($t = -1.06$, $df = 46$, $p > .05$)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에서 호오차원조건의 재인확신도가 다른 조건의 그것보다 높은 까닭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세 조건에서 모두 두 특성의 재인확신도 간에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은 이와 같은 결과는, 적어도 이 재인확신도의 자료에서는 본 실험의 기본 가설이 지지받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群集化程度의 差異 실험Ⅱ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실험의 각 조건에서 피험자별로 보인 두 특성의 자유회상 결과를 기초로 SCR을 계산하여 특성별 군집화 정도의 지표로 삼았다. 이렇게 얻은 각 조건에서의 특성별 SCR의 평균·상관 및 그 차이검증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각 조건 군집화정도(SCR) 평균·상관 및 차이(괄호안은 SD)

실험조건	호 오 차 원	화 친 차 원	기 억
지적특성(I)	1.23(.56)	.79(.84)	.99(.75)
정적특성(A)	1.07(.80)	1.20(1.04)	1.12(.56)
합(T)	2.30(1.10)	1.99(1.77)	2.11(1.15)
$r_{I \cdot A}$	.295	.767**	.446*
$t_{\bar{x}_I - \bar{x}_A}$	.95	-2.94**	-.88

* 5% 有義水準(r 의 $df = 22$, 兩方; t 의 $df = 23$, 兩方)

** 1% 有義水準(r 의 $df = 22$, 兩方; t 의 $df = 23$, 兩方)

위의 <표 14>에서 보면, 기억조건에서 두 특성의 SCR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 = -.88$, $df = 23$, $p > .05$). 그러나, 화친차원조건에서는 정적 특성의 SCR이 지적 특성의 SCR보다 유의미하게 크다($t = -2.94$, $df = 23$, $p < .01$). 이는 화친차원조건에서는 정적 특성이 지적 특성보다 더 잘 조직화되어 회상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호오차원조건에서는 지적 특성의 SCR이 정적 특성의 그것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에는 이르고 있지 못하다($t = .95$, $df = 23$, $p > .05$).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을 변량분석으로 검증해 본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각 조건 SCR의 변량분석 결과

변 량 원	자 승 화	자 유 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63.66	71		
차원(A)	.60	2	.30	—
오차(a)	63.06	69	.91	
집단내	22.78	72		
자극어특성(B)	.59	1	.59	2.03
A × B	1.96	2	.98	3.38*
오차(b)	20.23	69	.29	

* 5% 有義水準

<표 15>에서 보면, 실험조건과 자극어 특성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F = 3.38$, $df = 2/69$, $p < .05$). 이는 실험조건에 따라 두 특성의 SCR이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험조건에 따른 이러한 두 특성별 SCR의 차이는 두 인상판단조건에서 두 드러진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지적 특성의 SCR은 호오차원조건(1.23)에서가 화친차원조건(.79)에서보다 유의미하게 크다($t = 2.14$, $df = 46$, $p < .05$). 그러나, 정적 특성의 SCR은 화친차원조건(1.20)에서가 호오차원조건(1.07)에서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t = .49$, $df = 46$, $p > .05$). 이러한 두 조건의 특성별 회상량의 차이는 이 두 조건의 결과만을 분석해 보아도 실험조건과 특성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검출되었다($F = 7.04$, $df = 1/46$, $p < .01$)는 사실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의 기본 가설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다.

두 인상차원조건과 기억조건의 특성별 SCR을 비교해 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없었다(지적 특성: $t_{기억: 호오} = -1.26$, $t_{기억: 화친} = .87$, $df = 46$, $p > .05$; 정적 특성: $t_{기억: 호오} = .25$, $t_{기억: 화친} = -.33$, $df = 46$,

$p > .05$). 세 조건의 총 SCR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_{호오:화친} = .73$, $t_{기억:호오} = -.58$, $t_{기억:화친} = .28$, $df = 46$, $p > .05$).

印象評定結果의 差異 본 실험에서는 두 인상차원조건에서 기억량을 측정하기 전에 $-10 \sim 10$ 의 21점척도에서 대상인물에 대해 형성한 인상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즉, 동일한 대상인물에 대해 호오차원조건과 화친차원조건에서 각각 호오차원인상과 화친차원인상을 평정한 것이다. 이렇게 평정한 두 차원 인상평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두 차원 인상평정치* 평균과 SD

인상차원 \ 인상평정치				$\bar{X}$	SD
호	오	차	원	6.50	2.06
화	친	차	원	4.75	2.80

* $-10 \sim 10$ 의 21점척도에서 얻은 평정치임.

위의 표에서 보면, 호오차원의 인상평정치가 화친차원의 인상평정치보다 높다($t = 2.47$, $df = 46$, $p < .01$). 이는 동일한 대상인물에 대한 호오차원 인상평정치가 화친차원 인상평정치보다 극단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호오차원 인상은 累加模型에 따라, 그리고 화친차원 인상은 平均模型에 따라 인상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므로(趙, 1979), 동일한 대상인물에 대한 호오차원 인상평정치가 화친차원 인상평정치보다 극단적일 것이라는 필자의 이원모형(趙, 1982a)을 지지해 주고 있다 하겠다.

이상에서 보듯이 회상량과 이를 기초로 한 군집화정도의 결과에서는 본 실험의 기본 가설이 지지되고 있다. 즉, 호오차원인상의 조건에서는 지적 특성에 대한 기억이 촉진되고, 화친차원인상의 조건에서는 정적 특성에 대한 기억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재인확신도의 결과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재인확신도 결과와 회상량 결과의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綜 合 論 議

이상과 같은 연속된 세 실험의 결과는 필자(趙, 1982a)의 대인평가차원의 이원모형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험 I에서는 정보의존상황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특성과 효과의존상황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김성희(1982)의 연구결과와 결부시켜 보면, 정보의존상

황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특성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지적 특성들이고, 효과의존상황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특성은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적 특성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는 정보의존상황에서는 지적 특성을, 그리고 효과의존상황에서는 정적 특성을 중요한 인상판단의 단서로 삼게 된다는 필자의 이원모형을 입증해주는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실험Ⅱ의 결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실험Ⅱ에서는 정보의존상황이라는 도식에서 인상판단을 시킬 때는 상대적으로 지적 특성의 기억이 촉진되고, 효과의존상황이라는 도식에서 인상판단을 시킬 때는 정적 특성에 대한 기억이 촉진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정보의존상황이라는 도식에서 인상판단을 할 때는 지적 특성이 더 주제에 적절한(theme-relevant) 특성이고, 효과의존상황이라는 도식에서 인상판단을 할 때는 정적 특성이 더 주제에 적절한 특성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정보의존상황에서는 타인의 지적 특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효과의존상황에서는 정적 특성을 중심으로 인상판단을 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험Ⅲ에서는 인상판단차원에 따른 자극어 특성의 기억량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정보의존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인상판단차원인 호오차원이라는 인상도식에서 인상판단을 할 때는 지적 특성의 기억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효과의존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인상판단차원인 화친차원이라는 인상도식에서 인상판단을 할 때는 정적 특성의 기억량이 높았던 것이다. 또한, 이 실험에서는 동일한 대상인물에 대한 호오차원의 인상평정치가 화친차원의 인상평정치보다 더 極化하는 현상도 검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필자의 대인평가차원의 이원모형에서 예측한 바대로의 것이다. 따라서, 대인기억 분야의 연구방법을 원용한 본 실험의 결과에서도 필자의 이원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들에는 선행연구들과 결부시켜 몇가지 논의해 볼 점들이 있다.

우선 회상량의 결과와 재인확신도 결과 사이의 비교이다. 본 실험에서 회상량의 결과는 실험Ⅱ와 Ⅲ 모두에서 대체로 주제에 적절한 특성의 회상량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높은 圖式的 情報處理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5>와 <표 12>에서 모두 실험조건과 자극어 특성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재인확신도의 경우 실험Ⅱ에서는 도식적 정보처리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표 7>에서 실험조건과 자극어 특성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검출되고 있다), 실험Ⅲ에서는 도식적 정보처리의 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세 실험조건 모두에서 두 특성의 재인확신도가 동일한 결과(<표 13> 참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Brewer와 Nakamura(1984)가 지적하고 있듯이, 회상과제의 결과에서는 항상 기본적인 도식효과가 나타나고 있

지만, 재인확신도 과제에서는 실험에 따라 얻어진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결부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재인확신도를 종속측정치로 삼은 연구들에서는 도식적 정보처리의 결과를 얻어낸 것들도 있고(Bower, Black, & Turner, 1979; Brewer & Dupree, 1983; Goodman, 1980), 반대로 도식에 적절한 정보에 대한 재인확신도가 그렇지 않은 정보에 대한 그것과 같거나 더 낮게 나온 결과(Graesser, Gordon, & Sawyer, 1979; Graesser, Woll, Kowalski, & Smith, 1980; Friedman, 1979)도 있는 것이다. Brewer와 Nakamura(1984)는 재인확신도 연구결과들의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을 자극제시와 재인확신도 검사 사이의 시간간격, 실험에 사용된 정보의 유형 등의 요인에서 찾고 있으나(pp.153-154), 본 연구의 실험Ⅱ와 Ⅲ은 위의 두 요인이 모두 동일하므로 이 두 실험의 결과를 이러한 요인에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실험Ⅲ에서는 실험Ⅱ와는 달리 기억량의 측정 전에 제시된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판단을 시키므로써, 제시된 자극어들 사이의 조직화를 더욱 촉진시켜 자극어들 사이의 聯合網을 더욱 강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합망의 강화는 자극어의 引出過程(retrieval process)을 더욱 쉽게 하므로(Hastie, 1980), 결국 入力過程(encoding process)보다는 인출과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회상량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인출과정보다는 입력과정의 영향을 더 받는 재인확신도는 모든 특성에 대해 높아진 결과를 미쳤을지도 모른다(Srull, 1984, pp.38-44). 실제로, Srull(1981)은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형성을 하게 하고 회상량과 재인확신도를 측정해 보면, 회상량의 결과에서는 도식적 정보처리의 양상이 나타났으나 재인확신도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 그 까닭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험Ⅱ에서나 Ⅲ에서나 인상판단조건의 회상량과 기억조건의 회상량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인상판단조건의 회상량이 기억조건의 회상량보다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Hamilton, 1981; Hamilton, Katz, & Leirer, 1980a,b; Srull, 1981, 1983). 하지만, 기억조건의 회상량이 인상판단조건의 그것보다 크게 나타난 결과도 있다(Cohen & Ebbesen, 1979). 또한, 동일한 연구자들이 인상조건의 회상량과 기억조건의 회상량 사이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일련의 실험을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Wyer & Gordon, 1982). 고재홍(1984)은 인상판단조건과 기억조건의 회상량 사이의 이러한 일치하지 않는 결과는 제시되는 정보의 양과 복잡성의 함수라고 보고, 정보량이 많거나 정보가 단순할 때는 인상형성조건의 기억율(그는 회상량의 결과를 기억율로 환적하여 종속측정치로 삼았다)이 높지만, 정보량이 적거나 정보가 복잡할 때는 두 조건 기억율에 차이

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본 실험의 결과를 결부시켜 보면, 본 실험은 高의 실험에서 정보량이 적고 정보가 복잡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高의 실험에서 정보량의 小・大는 행동진술문의 수를 18 개와 36 개로 조작하였고, 정보복잡성의 단순・복잡은 상기한 행동진술문이 의미하는 특성의 수를 3 개와 6 개로 조작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대상인물을 24 개(실험Ⅱ)와 22 개(실험Ⅲ)의 특성으로 조작한 것은 기본적으로 高의 실험에서 정보량이 적은 조건에 해당하고, 또한 특성의 수가 24 개와 22 개 썩이었다는 것은 고도로 정보가 복잡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高의 실험에서 자극재료는 행동진술문을 사용하였고, 본 실험은 성격특성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직접적인 비교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이 두 조건의 기억량의 차이를 회상량의 지표로만 비교하고 있을 뿐 재인확신도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재인확신도의 경우 실험Ⅱ의 정보의존조건과 복합의존조건, 실험Ⅲ의 호호차원조건에서는 기억조건보다 모두 총재인확신도가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표 6>과 <표 13> 참조). 물론, 인상형성조건과 기억조건을 대비시킨 연구들의 실험목적이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 대상인물에 대한 정보들의 조직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에 따라 도식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밝히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회상량만을 종속측정치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Sruil(1984)이 지적하듯이 대인기억의 과정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제반 종속측정치에 의한 결과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조건의 기억량의 비교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본 실험의 결과에서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은 정적 특성의 전반적인 회상량이 지적 특성의 그것보다 크다는 사실이다. 이는 <표 5>와 <표 12>에서 모두 자극어특성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결과는 정적 특성 자극어의 기준 기억유용성이 지적 특성 자극어의 기억유용성보다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 기억유용성의 차이는 <표 3>과 <표 10>에서 보듯이 본 실험에서 자극재료로 사용된 지적 특성과 정적 특성의 각 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의 차이가 다른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표 3>에서 보면, 지적 특성의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 평균은 2.10,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 평균은 -.09 이다. 이에 비해 정적 특성의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 평균은 1.85,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 평균은 .52 이다. <표 10>에서 보면, 지적 특성의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는 2.10,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는 .02 이다. 이에 비해 정적 특성의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는 1.94,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는 .69 이다. 또한, <표 3>과 <표 10>에서 정적 특성의 호

오도치와 화친도치는 같은 데 비해(1.76 : 1.78 및 1.87 : 1.89), 지적 특성에서는 호오도치와 화친도치에 차이가 나고 있다(1.70 : 1.48 및 1.67 : 1.45). 이러한 점은 지적 특성은 정보의존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효과의존상황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음에 비해, 정적 특성은 정보의존상황에서 보다는 효과의존상황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될 뿐 정보의존상황에서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게 고려되는 특성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실험Ⅱ와 Ⅲ의 자극어로 선정된 특성들만의 성질이 아니라 인물평가형용사의 전반적인 성질이라 보여진다. 이는 〈표 1〉에서 제시된 53개 형용사 중 지적 특성을 나타내는 23개 형용사의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 평균치는 1.63,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 평균치는 - .32 임에 비해, 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18개 형용사의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 평균치는 1.27,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 평균치는 .04 로서, 두 중요도 평균치의 차이가 전자는 1.95에 이르지만 후자는 1.23 정도라는 점에서도 분명해진다. 바로 이러한 각 상황에서 고려되는 중요도의 차이 때문에, 실험Ⅱ의 결과에서 정보의존상황조건과 효과의존상황조건의 회상량을 비교하면, 지적 특성의 경우에는 전자의 회상량(4.60)이 후자의 회상량(3.15)보다 유의미하게 크지만($t = 3.29, df = 38, p < .01$), 정적 특성의 경우에는 전자의 회상량(4.60)과 후자의 회상량(5.15)이 별 차이가 없으며($t = -1.11, df = 38, p > .05$), 또한 실험Ⅲ에서 호오차원조건과 화친차원조건을 비교해 보면, 지적 특성의 경우에는 전자의 회상량(4.29)이 후자의 회상량(3.08)보다 크지만($t = 2.50, df = 46, p < .01$), 정적 특성의 경우에는 전자의 회상량(4.04)과 후자의 회상량(4.71)이 별 차이가 없게($t = 1.33, df = 46, p > .05$)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필자의 선행연구(趙, 1982a 연구5, 1984)에서 거듭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화친차원의 인상이 형성되는 효과의존상황에서는 정적 특성만을 중요한 단서로 인지할 뿐 지적 특성은 인상판단에 중요하지 않은 특성으로 보는 반면, 호오차원의 인상이 형성되는 정보의존의 상황에서는 지적 특성을 더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을 뿐 정적 특성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게 받아들인다”(趙, 1982a, p.80)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특성의 차이가 인상형성과정에서 이 두 특성 자체가 본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인지 아니면 자극어의 사용빈도 등 통제하지 못한 변인 때문인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실험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고찰해 보면, 인상형성의 장면에서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정보의존상황과 효과의존상황) 및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인상판단차원(호오차원과 화친차원)은 타인에 대한 인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圖式으로 작용하게 됨이 분명하다. 그리고, 정보

의존상황과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인상판단인 호오차원이라는 인상도식에는 지적 특성이 관련특성(theme-relevant 또는 schema-related traits)이 되고, 효과의존상황과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인상판단차원인 화친차원이라는 인상도식에는 정적 특성이 관련특성이 되는 것임이 또한 명백하다. 이러한 관련특성들은 Brewer 등(1981, 1984)이 주장하듯이 각각의 도식으로 인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주의를 끌게 되고, 기억과정에서 더 잘 유지되고 더 잘 통합되며, 인출 및 인출내용의 편집과정도 더 쉬워지게 된다. 즉, 타인에 대한 인상은 필자(趙, 1982a)의 아원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의존상황과 인상판단차원이라는 도식에 관련된 특성을 탐색하고 통합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고재홍. 정보량과 정보복잡성이 대인 정보의 기억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4.
- 김성희. 한국어 성격특성형용사들의 인상형성차원에 관한 요인분석적 연구. 서울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2.
- 張聖洙. 印象形成에서의 情報統合에 관한 一考察. 서울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1978.
- 趙兢鎬. 같은 內容의 印象情報의 數가 好惡判斷과 和親判斷에 미치는 影響의 差異. 韓國心理學會誌, 1979, 2-3, 132-148.
- 趙兢鎬. 對人評價次元의 二元性에 관한 研究: 好惡性과 和親性. 서울대학교 大學院 博士學位 請求論文, 1982.(a)
- 趙兢鎬. 知的 評價情報과 情的 評價情報가 好惡次元印象과 和親次元印象에 미치는 影響의 差異. 社會心理學研究, 1982, 1-1, 78-100.(b)
- 趙兢鎬. 情報의 評價特性 및 組合의 크기에 따른 好惡와 和親次元 印象反應의 差異. 社會心理學研究, 1983, 1-2, 279-296.
- 趙兢鎬. 好惡와 和親의 印象判斷次元에 따른 對人評價特性의 回想量의 差異. 社會心理學研究, 1984, 2-1, 174-192.
- Abelson, R. P. Script processing in attitude formation and decision-making. In J. S. Carroll & J. N. Payne (Eds.), *Cognition and social behavior*.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1976.
- Abelson, R. P. Psychological status of the script concept. *American Psychologist*, 1981, 36, 715-729.
- Allen, R. B., & Ebbesen, E. B. Cognitive processes in person perception: Retrieval of personality trait and behavioral in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81, 17, 119-141.
- Allport, G. W., & Postman, L. J. The basic psychology of rumor. *Academic Science*,

Series II, 1945.

- Atkinson, R. C., & Juola, J. F. Search and decision processes in recognition memory. In D. H. Krantz, R. C. Atkinson, R. D. Luce, & P. Suppes (Eds.), *Contemporary developments in mathematical psychology* (Vol. 1). San Francisco: Freeman, 1974.
- Bartlett, F. C. *Remembering: A study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2.
- Bousfield, A. K., & Bousfield, W. A. Measurement of clustering and of sequential constancies in repeated free recall. *Psychological Reports*, 1966, **19**, 935-942.
- Bower, G. H., Black, J. B., & Turner, T. J. Scripts in memory for text. *Cognitive Psychology*, 1979, **11**, 177-220.
- Bransford, J. D. *Human cognition: Learning, understanding, and remembering*. Belmont: Wadsworth, 1979.
- Brewer, M., Dull, V., & Lui, L. Perceptions of the elderly: Stereotypes as prot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1, **41**, 656-670.
- Brewer, W. F., & Dupree, D. A. Use of plan schemata in the recall and recognition of goal-directed 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983, **9**, 117-129.
- Brewer, W. F., & Nakamura, G. V. The nature and functions of schemas. In R. S. Wyer, J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1). New Jersey: Lawrence Erlbaum, 1984.
- Brewer, W. F., & Treyens, J. C. Role of schemata in memory for places. *Cognitive Psychology*, 1981, **13**, 207-230.
- Cantor, N., & Mischel, W. Traits as prototypes: Effects on recognition mem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7, **35**, 38-48.
- Cohen, C. E., & Ebbesen, E. B. Observational goals and schema activation: A theoretical framework for behavior percep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79, **15**, 305-329.
- Ebbesen, E. B. Cognitive processes in inferences about a person's personality. In E. T. Higgins, C. P. Herman, & M. P. Zanna (Eds.),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 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1.
- Ebbesen, E. B., & Allen, R. B. Cognitive processes in implicit personality trait in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9, **37**, 471-488.
- Fiske, S. T., & Linville, P. W. What does the schema concept buy u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80, **6**, 543-557.
- Friedman, A. Framing pictures: The role of knowledge in automatized encoding and memory for gis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979, **108**, 315-355.
- Goodman, G. S. Picture memory: How the action schema affects retention. *Cognitive Psychology*, 1980, **12**, 473-495.
- Graesser, A. C., Gordon, S. E., & Sawyer, J. D. Recognition memory for typical and atypical actions in scripted activities: Tests of a script pointer + tag hypothesis.

-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979, 18, 319-332.
- Graesser, A. C., Woll, S. B., Kowalski, D. J., & Smith, D. A. Memory for typical and atypical actions in scripted activit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Learning and Memory*, 1980, 6, 503-515.
- Hamilton, D. L.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persons. In E. T. Higgins, C. P. Herman, & M. P. Zanna (Eds.),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 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1.
- Hamilton, D. L., Katz, L. B., & Leirer V. O. Cognitive representation of personality impressions: Organizational processes in first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0, 39, 1050-1063. (a)
- Hamilton, D. L., Katz, L. B., & Leirer V. O. Organizational processes in impression formation. In R. Hastie, T. M. Ostrom, E. B. Ebbesen, R. S. Wyer, D. L. Hamilton, & D. E. Carlston (Eds.), *Person memory: The cognitive basis of social perception*.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0. (b)
- Hastie, R. Memory for information which confirms or contradicts a general impression. In R. Hastie, T. M. Ostrom, E. B. Ebbesen, R. S. Wyer, D. L. Hamilton, & D. E. Carlston (Eds.), *Person memory: The cognitive basis of social perception*.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0.
- Hastie, R. Schematic principles in human memory. In E. T. Higgins, C. P. Herman, & M. P. Zanna (Eds.),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 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1.
- Hastie, R., & Kumar, P. A. Person memory: Personality traits as organizing principles in memory for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9, 37, 25-38.
- Higgins, E. T., & Rholes, W. S. Impression formation and role fulfillment: A "holistic reference" hypothesi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76, 12, 422-435.
- Hofstadter, D. R. *Gödel, Escher, and Bach: An eternal golden braid*. New York: Vintage Books, 1979.
- Landman, J., & Manis, M. Social cognition: Histor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6). New York: Academic Press, 1983.
- Lichtenstein, E. H., & Brewer, W. F. Memory for goal-directed events. *Cognitive Psychology*, 1980, 12, 412-445.
- Lingle, J. H., Geva, H., Ostrom, T. M., Leippe, M. R., & Baumgardner, M. H. Thematic effects of person judgments on impression organ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9, 37, 674-687.
- Linville, P. W., & Jones, E. E. Polarized appraisals of out-group me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0, 38, 689-703.
- Markus, H.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7, 35, 63-78.

- Ostrom, T. M., Lingle, J. H., Pryor, J. B., & Geva, N. Cognitive organization of person impressions. In R. Hastie, T. M. Ostrom, E. B. Ebbesen, R. S. Wyer, D. L. Hamilton, & D. E. Carlston (Eds.), *Person memory: The cognitive basis of social percep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0.
- Ostrom, T. M., Pryor, J. B., & Simpson, D. D. The organization of social information. In E. T. Higgins, C. P. Herman, & M. P. Zanna (Eds.),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 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1.
- Park, B., & Rothbart, M. Perception of out-group homogeneity and levels of social categorization: Memory for the subordinate attributes of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2, **42**, 1051-1068.
- Roener, D. L., Thompson, C. P., & Brown, S. C. Comparison of measures for the estimation of clustering in free recall. *Psychological Bulletin*, 1971, **76**, 45-48.
- Rosenberg, S., Nelson, C., & Vivekananthan, P. 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imp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8, **9**, 283-294.
- Rothbart, M., Evans, M., & Fulero, S. Recall for confirming events: Memory processes and the maintenance of social stereotyp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79, **15**, 343-355.
- Shoben, E. J. Theories of semantic memory: Approaches to knowledge and sentence comprehension. In R. J. Spiro, B. C. Bruce, & W. F. Brewer (Eds.), *Theoretical issues in reading comprehension: Perspectives from cognitive psychology, linguistic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duc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0.
- Smith, E. E. Theories of semantic memory. In W. K. Estes (Ed.), *Handbook of learning and cognitive processes* (Vol. 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78.
- Smith, E. E., Shoben, E. J., & Rips, L. J. Structure and process in semantic memory: A featural model for semantic decisions. *Psychological Review*, 1974, **81**, 214-241.
- Srull, T. K. Person memory: Some tests of associative storage and retrieval model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Learning and Memory*, 1981, **71**, 440-463.
- Srull, T. K. Organizational and retrieval processes in person memory: An examination of processing objectives, presentation format, and the possible role of self-generated retrieval c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3, **44**, 1157-1170.
- Srull, T. K. Methodological technique for the study of person memory and social cognition. In R. S. Wyer, J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2). New Jersey: Lawrence Erlbaum, 1984.
- Sternberg, R. J., & Tulving, E.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organization in free recall. *Psychological Bulletin*, 1977, **84**, 539-556.
- Taylor, S. E., & Crocker, J. Schematic bases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E. T. Higgins, C. P. Herman, & M. P. Zanna (Eds.),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

- sium 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1.
- Wyer, R. S., & Gordon, S. E. The recall of information about persons and grou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82, **18**, 128-164.
- Wyer, R. S., & Srull, T. K. The processing of social stimulus information: A conceptual integration. In R. Hastie, T. M. Ostrom, E. B. Ebbesen, R. S. Wyer, D. L. Hamilton, & D. E. Carlston (Eds.), *Person memory: The cognitive basis of social percep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0.
- Wyer, R. S., & Srull, T. K. Category accessibility: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social stimulus information. In E. T. Higgins, C. P. Herman, & M. P. Zanna (Eds.),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 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1.

ABSTRACT

The Type of Dependency, Impression—Dimension, and Memory for Schema—Related Traits.

Cho, Geung-Ho

Sogang University

Three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test the hypothesis that the intellectual traits and the affective traits would have differential effects in forming impression of other person as a function of the type of dependency on him/her and the impression-dimension.

In Experiment I, 103 students evaluated 53 personality-trait-adjectives in terms of their value to be considered as important in forming impression of other person in information-dependent-situation and in effect-dependent-situation respectively. From this experiment, 23 intellectual traits, whose importance values in information-dependent-situation were higher than those in effect-dependent-situation, and 18 affective traits, whose importance values in two situations were vice versa from those of intellectual traits, were identified.

In Experiment II, a stimulus person, consisted of 24 traits (12 intellectual traits and 12 affective traits), was presented with the schema to form impression of him/her in information-dependent-situation or in effect-dependent-situation respectively. The main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amount of free recall, the recognition confidence and the SCR score (Bousfield & Bousfield, 1966) of each trait groups. From this experiment, the followings were found; (1) in forming impression of other with the information-dependent-situation schema, the intellectual traits were recalled more, recognized more confidently and their SCR scores were higher than the affective traits, and (2) in forming impression of him/her with the effect-dependent-situation schema, the affective traits were higher than the intellectual traits in all of the 3 dependent measures.

In Experiment III, the same stimulus person of Experiment II was presented with the schema to form impression according to the good-bad dimension and the like-dislike dimension respectively. As predicted, the intellectual traits were recalled more and their SCR scores were higher than the effective traits in the good-bad impression condition, and the amount of recall of the affective traits and their SCR scores in the like-dislike

condition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intellectual traits.

These results supported fully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From thes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 can be elicited: the author's (Cho, 1982a) dual-aspect model of person evaluation is justified in the study of person memory as well as in the study of impression formation (Cho, 1982a, b, 1983, 1984).